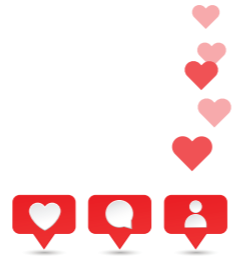


연예가를 달리던 리포터 더 큰 세상으로 뛰다!

방송인 김태진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늘 '김태진'이 있었다. 연예 리포터로 탄탄히 입지를 굳힌 그에게는 국내 연예 리포터계의 '역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제 리포터를 넘어 유튜브와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능엔터테이너 김태진을 만났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정확하고도 다채로운 표현력을 동원해 연예계 뉴스를 전한다. 주로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질문을 던진다. 프로그램 감초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며 20년차 연예 리포터라는 자기만의 역사를 썼다. 리포터 김태진의 이야기다. KBS2 <연예가중계>가 <연중Live>으로 이름이 바뀌고, MC들이 계속 교체되는 동안에도 김태진은 변함없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주변에서 종종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색무취'라고 이야기해요. 연예인 소식을 전하는 게 제 직업이자 역할이다 보니 튀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리포터를 시작할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4살. 2001년 Mnet 공채 9기 VJ(Video Jockey)로 데뷔한 그에게 연예 리포터는 방송가에 자신을 알리는 기회였다. 불과 5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인터뷰를 끌어내야 하니, 순발력은 기본이고 기획력까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다. 그동안 쌓인 신뢰 덕분에 인터뷰 때마다 먼저 김태진을 찾는 스타들도 생겨났다. 대중이 연예계 소식을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진 요즘 공중파 연예 프로그램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고 녹화도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태진 라이브 커머스 채널



방송 이력

- 2001년 — MNET 공채 9기 VJ 데뷔
- 2018년 — KBS 연예대상 베스트엔터테이너상
- 2020년 — 제27회 KBS 연예대상
베스트 팀워크상(연중 라이브)

제2의 고향에서 다방면 활약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증명이라도 한 듯 기회는 곧 찾아왔다. 2018년 모바일 라이브퀴즈쇼 <잼라이브>를 진행하며 '잼 아저씨' 열풍을 일으켰고, 그동안 쌓은 내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행사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진행은 김태진이 잘한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예전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 덕분에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팔로워를 기반으로 소통하다 보니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상품 공부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방송인 김태진. 2009년, 그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전환기와 함께 고양특례시와 첫 인연을 맺었다. 식사동을 거쳐 삼송동에 보금자리를 튼 김태진은 "고양시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고양특례시민으로 살아가는 그의 제2 전성기를 응원해본다.